

출장보고서
2018.10.10~15
독일 프랑크푸르트

---

# 2018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

2018. 10

한국개발연구원

# I. 출장 개요

## 1. 출장기간

2018.10.10(수)~10.15(월) / 4박6일간

## 2. 출장국

독일(프랑크푸르트)

## 3. 방문기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전시장, TechQuartier

## 4. 출장목적

2018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해 세계시장의 출판 동향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출판시장 트렌드 점검을 통해 향후 경제정보센터 주관 출판물의 기획 및 발간에 반영하고자 함.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스타트업 허브인 TechQuartier를 방문해 독일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알아보고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함.

## 5. 출장자 명단

심재학 경제교육실장

고은주 정책정보허브팀 전문연구원

이지연 나라경제팀 전문연구원

## II. 출장 세부일정

일 시	일정	세부사항
<b>10.10(수)</b>	<b>&lt; 인원 : 3명 &gt;</b>	<b>&lt; 인천 ⇒ 프랑크푸르트 &gt;</b>
09:00	▪ 공항 집결 및 출국 수속	
12:00	▪ 항공기 탑승(OZ541)	- 현지시각 16:30 프랑크푸르트 도착
17:30	▪ 호텔 체크인	· ibis Styles Hotel Frankfurt Offenbach - Kaiserleistraße 4, 63067 Offenbach
18:30	▪ 석식	
<b>10.11(목)</b>		<b>&lt; 프랑크푸르트 &gt;</b>
07:30	▪ 조식	· 호텔 내 조식뷔페
08:30	▪ 이동	· 오픈바흐 -> 프랑크푸르트
09:30~ 11:00	▪ 테크쿼터어 (TechQuartier) 관계자 인터뷰	· TechQuartier - Platz der Einheit 2, 60327 Frankfurt · Hugo Paquin (Marketing Manager) ⑤ paquin@techquartier.com ① +49 69 900 1605 · Gemma Ferst (Ecosystem Manager) ⑤ ferst@techquartier.com ① +49 162 3784200
11:30	▪ 중식	
13:00~ 17:00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 Frankfurter Buchmesse - Ludwig-Erhard-Anlage 1, 60327 Frankfurt · 도서전 등록 · 주빈국 전시 관람 - 주빈국: Georgia - 주제: Made By Characters
17:30	▪ 석식	
19:00	▪ 이동	· 프랑크푸르트 -> 오픈바흐
<b>10.12(금)</b>		
08:00	▪ 조식	· 호텔 내 조식뷔페
09:00	▪ 이동	· 오픈바흐 -> 프랑크푸르트
10:00	▪ 호텔 체크인	· Steigenberger Hotel Metropolitan - Poststraße 6, 60329 Frankfurt

일 시	일정	세부사항
10:30~ 12:30	▪ 도서전 관람	· 한국 출판사 부스 방문
12:30	▪ 중식	
13:30~ 17:00	▪ 도서전 관람	· 한국 출판사 부스 방문 · THE ARTS+ 방문
17:30	▪ 석식	
<b>10.13(토)</b>		
08:00	▪ 조식	· 호텔 내 조식뷔페
09:00~ 12:00	▪ 도서전 관람	· Education Stage 방문
12:30	▪ 중식	
13:30~ 18:00	▪ 도서전 관람	· 각국 부스 방문
18:30	▪ 석식	
<b>10.14(일)</b>		<b>&lt;프랑크푸르트 ⇒ 인천&gt;</b>
08:00	▪ 조식	· 호텔 내 조식뷔페
09:30	▪ 방문 결과 정리 및 출장 보고서 작성 회의	
10:30	▪ 호텔 체크아웃	
11:00~ 13:00	▪ 도서전 관람	· 각국 부스 방문
13:30	▪ 중식	
16:00	▪ 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18:30	▪ 항공기 탑승(OZ542)	· 10.15(월) 11:50 인천공항 도착(+1일)

### Ⅲ.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 1. 도서전 현황

##### □ 세계 최대 도서전

- 매년 10월 둘째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5일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으로 독일서적상출판인협회(German Publishers and Booksellers Association)에서 주최
- 전세계 출판, 콘텐츠, 멀티미디어 관련 업체들의 저작권 거래가 이뤄지는 자리

##### □ 세계 최고(最古) 도서전

-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된 이후 프랑크푸르트 인근 마인츠에서 출판업자들이 책을 팔고 인쇄서적을 홍보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시작됨.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7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었는데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그 자리를 내줬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됐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1949년 재개되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음.
- 한국은 1961년부터 참가

##### □ 매년 주빈국 선정

- 1976년부터 매년 주빈국(guest of honour)을 선정해 해당 국가의 출판문화 소개
- 주빈국의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참가하며, 낭독회, 전시회, 토론회,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첫 주빈국은 라틴아메리카였으며(주빈국이 반드시 국가 단위는 아님), 한국은 2005년 주빈국으로 선정된 바 있음.

- 2018년 주빈국은 조지아였고, 2019년은 노르웨이, 2020년은 캐나다로 예정돼 있음.

## 2. 2018년 도서전 주요 내용

### □ 도서전 개요

- 개최기간: 2018년 10월 10일(수) ~ 2018년 10월 14일(일)
  - 10월 10일(수) ~ 12일(금): 사전등록한 출판 관계자만 참가
  - 10월 13일(토) ~ 14일(일): 일반인 관람
- 개최규모: 109개국 7,503 업체 참가, 28만24명 참관(방문자 수 2017년 대비 0.5% 감소)
- 개최장소: Messe Frankfurt
- 주최: 독일서적상출판인협회

### □ 주빈국: 조지아

- 주제: Georgia - Made by Characters(문자로 만들어진 조지아)
- 주최: 조지아 교육과학문화체육부, 조지아국립도서센터
- 내용: 2016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조지아 고유 문자를 주제로 꾸며진 전시실을 중심으로 특별관을 운영.
  - 주요 행사: 조지아의 신진 작가들 소개, 주요 작가와의 만남,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지아 출신 음악가 공연



<Guest of Honour Pavilion>

### 3. 2018년 도서전 주요 동향

#### □ 출판과 인공지능(AI)

-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이 출판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AI로 인한 법적·윤리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베스트셀러를 예측하는 AI: 책의 내용을 분석해 판매량을 예측하는 AI 소프트웨어 등장. 출판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어 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교육출판과 AI: 교육출판업계가 기술을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제시
- 미디어산업과 콘텐츠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인해 콘텐츠 검증, 라이선스 관리, 콘텐츠 유통 및 판매가 수월해질 것
- 제1회 Frankfurt Creative AI Conference 개최: AI가 예술 산업(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에 미칠 영향 논의. 제작, 큐레이션, 유통, 마케팅 등에서의 AI의 역할 다뤘음.

#### □ 에드테크(EdTech)와 이러닝

- 교육분야 콘텐츠, 기술, 혁신 등을 다룬 국제 규모의 플랫폼인 Frankfurt EDU 출범
- 교육·에드테크 스타트업 부스, 워크샵, 체험관 등 운영

#### □ 오디오북 강세

- 도서전 기간 중 열린 오디오북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출판시장에서 오디오북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언급
- 작년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디오북 판매량이 각각 23%, 16% 증가
- 스마트폰과 스마트스피커 사용자가 늘면서 오디오북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

#### □ 인권 캠페인

- 유엔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독일서적상

출판인협회는 유엔과 국제엠네스티와 손잡고 올해 #onthesamepage 캠페인 출범

- 2018년 도서전에서는 다수의 출판업체들이 인권과 관련된 서적을 전시하고 낭독회를 기획

□ 정치·사회적 사안이 부각된 2018년 도서전

- 미투운동, 언론의 자유, 트럼프 시대, 이민자, 난민문제, 페미니즘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
- 시대상을 반영한 문학 장르 언급: Cli-Fi(climate fiction,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주제로 한 문학), Up-Lit(uptlifting literature,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문학. 어두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각광받고 있음.)
-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가 참여한 토론에서는反외국인 정서와 포퓰리즘에 맞서는 방안 논의
- 위르겐 부스(Juergen Boos)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대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문을 연 이래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네트워킹과 대화를 지지해왔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여기서는 논란이 되는 이슈도 포함한 모든 이슈에 대한 논의가 허용돼야”

#### 4. 시사점 및 활용 방안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교육관련 전시도 비중 있게 다루는 만큼, 경제정보센터의 경제정보실뿐 아니라 자료개발실·경제교육실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도서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출판업체, 교육 콘텐츠 업체, 각국 공공기관 등)를 적극 활용해야

□ 기술혁신 덕분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콘텐츠

- 경제교육 분야는 커리큘럼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발전 트렌드에

도 민감해야(AI, VR를 활용한 교육, interactive 콘텐츠 등)

-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이출판은 아직도 건재함을 알 수 있었음.
  - 『나라경제』는 종이책 콘텐츠를 e-book, PDF 등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도 활용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주로 찾는 형태는 여전히 종이책이므로 디지털 콘텐츠를 계속 발전해나가되 종이책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 또한 『나라경제』는 잡지의 내용과 디자인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개선해 나가면서 디지털 매체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IV. 테크쿼티어 방문

### 1. 인터뷰 개요

- 일시: 2018년 10월 11일 9:30~11:00
- 장소: TechQuartier, Platz der Einheit 2, Frankfurt au Main
- 인터뷰 대상: Hugo Paquin (Marketing Manager), Gemma Ferst (Ecosystem Manager)

### □ 인터뷰 질의 내용

- ① Frankfurt is one of Europe's leading fintech hubs and attracts many startups in the industry. Is this due to preexisting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ts status as a financial hub, the presence of large corporations, solid infrastructure, etc.) or it is more attributed to effective government policies (support measures, deregulation, etc.)?
- ② Questions on the Masterplan for the startup region of Frankfurt Rhein-Main:
  - How doe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Masterplan? What are the motivations for universities, businesses and other players to participate?
  - To what extent was the private sector involved in the drafting stage of the Masterplan?
  - The Masterplan states that the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with a budget of 15 to 20 million euros over the course of three to five years. How much of this budget has been executed, and where has it been allocated?

③ Questions on TechQuartier:

-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achievements of TechQuartier? For example, how many startups have been involved since its launch in 2016 and how much capital has been invested.
- How do startups join the TechQuartier community? What are the criteria for joining, and how does TechQuartier help these startups?
- Can you give some examples of startups that you have worked with?
- How does TechQuartier work with corpor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④ One problem that startups face in Korea comes from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or example, large business lack motives to help the government in aiding startups, or some government policies do not reflect the needs of the industry. How can the government overcome such shortcomings and work together to create a strong startup ecosystem?

□ 인터뷰 기사(나라경제 2018년 11월호)

“프랑크푸르트 핀테크 분야에 경쟁력 있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배출이 목표”

- 독일 스타트업 허브 테크쿼티어(TechQuartier) -

독일의 스타트업 허브인 테크쿼티어(TechQuartier)를 방문하면 프랑크푸르트 주요 랜드마크의 이름을 따 재미있게 구성된 공간들을 만나볼 수 있다. 테크쿼티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하는 120여개의 스타트업들에 사무공간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헤센주와 손잡고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지역 스타트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테크쿼티어의 휴고 패퀸(Hugo Paquin) 마케팅팀장과 쟈마 퍼스트(Gemma Ferst) 스타트업생태계팀장을 만나 프랑크푸르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프랑크푸르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보는가.

쟈마 퍼스트(이하 쟈마) 프랑크푸르트는 분명 장점이 많은 도시다.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한자리에서 주요 은행들을 찾아갈 수 있고, 독일에서 외국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다양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 곧 다가올 브렉시트의 영향도 기대하고 있다. 영국에 환멸을 느낀 젊은 혁신가들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대거 이동하면서 스타트업의 이동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프랑크푸르트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뒤처졌다. 기업의 혁신능력이 부족한 점을 한 원인으로 본다.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이 소통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이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창의성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휴고 패퀸(이하 휴고) 아직까지는 독일에서 스타트업 하면 베를린을 먼저 떠올린다. 여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베를린에 비해 매력 없다는 선입견도 작용하는 것 같다. 베를린은 젊고 트렌디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금융도시로만 인식되고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도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추세로, 그만큼 프랑크푸르트는 핀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지역 스타트업 육성 마스터플랜’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테크쿼티어의 역할은?**

**젬마** 프랑크푸르트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마스터플랜은 크게 4개의 축(인재양성, 지역홍보, 협력강화, 자금유치)으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지역 내 스타트업 수를 현재의 200~300개 수준에서 1천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테크쿼티어는 마스터플랜 구상을 주도했으며 세부 사업계획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우리의 주요 사업 중 하나고,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과정 개발도 추진한다. 또 프랑크푸르트시의 홍보부서와 협력해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을 알리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휴고** 테크쿼티어에는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많다. 데모데이, 네트워킹 이벤트, 각테일파티 등의 행사가 일년 내내 열린다.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출범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나.**

**휴고** 물론 시행착오를 겪었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들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 점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해나갔다. 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경쟁자가 많아져 우리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찾는 것도 일이었다.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알렸다. 테크쿼티어는 프랑크푸르트시, 헤센주 경제 및 인프라은행(WIBank), 프랑크푸르트 괴테대, 다름슈타트 공과대가 지분을 25%씩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다. 시작단계에서 시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대학이 참여한 것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테크쿼티어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다. 덕분에 초반에 입주가 확정된 스타트업 하나 없이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테크쿼터에 합류하는 스타트업이 늘었고,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했다.

**테크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

**휴고** 프로그램 하나를 짜는 데 6주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참여자들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올해는 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4월에 독일 프로축구팀 SG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진행한 ‘MMI(Money Meets Idea) 스포츠테크’라는 프로그램이다. 스포츠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일주일 동안 클럽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분데스리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또 하나는 PwC(글로벌 컨설팅기업)와 함께하는 UX(사용자경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PwC가 스타트업 4곳을 선정해 3개월 동안 이들의 제품을 시험해보고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UX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천유로 가치의 컨설팅 서비스를 사실상 공짜로 받는 셈이다.

**향후 계획은.**

**휴고** 대규모 테크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 리스본의 웹서밋(Web Summit), 스톡홀름의 슬러시(Slush) 등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 콘퍼런스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이런 행사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에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젬마** 베를린의 경우 몇 건의 성공사례가 더 많은 투자자와 창업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하나의 유니콘 스타트업은 더 많은 유니콘으로 이어진다. 프랑크푸르트에는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 2022년까지 유니콘을 하나라도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쉽지 않겠지만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별첨 1> 2018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Sector별 구성

□ Hall 3

층	Sector	내용
1층 (3.0)	Calendar gallery	- 각국 출판업계에서 제작한 2019년 달력 전시
	Self-publishing area	- 자가 출판 관련 전시, 워크샵
2층 (3.1)	Audiobooks collective stand	- 오디오북
	Frankfurt EDU	- 교육관련 스타트업, 에드테크(Edtech) 소개 - International Education Exhibition (IEE)
	Independent publishers	- 독립출판업계 전시
	LitCam	- 축구 주제 서적 전시 - 다국어 서적 전시
	German Publishers and Booksellers Association Centre	- 독일서적상출판인협회 관련 정보

□ Hall 4

층	Sector	내용
1층 (4.0)	International publishers	- 아시아
	Business club	- 미팅 공간
	Frankfurt Rights Meeting	- 출판 저작권 관계자 전시, 토론회, 회의
2층 (4.1)	Arts	- 예술서적 - THEARTS+ - 고서적, 희귀서적
	Centre for Politics, Literature and Translation	- 작가 및 지식인들의 토론장 - 올해 주제: 세계시민의식 - 민주주의와 참여 (Global citizenship - Democracy and engagement)

	Indiecon kiosk	- 인디 잡지 전시
	World literature	- 세계 각국 소설을 독일어로 번역해 출판하는 비영리단체 Litprom 부스
	Exhibition of Stiftung Buchkunst	- 책 디자인상 수상작 전시
	Studying for books	- 서적관련 대학 교과과정 소개
3층 (4.2)	Frankfurt EDU	- 교육 관련 워크숍 개최
	International Library Centre (ILC)	- ILC관
	Academic & business information stage	- 학술지 전시, 강의, 토론회
	Education stage	- 교육관련 행사

□ Hall 5

층	Sector	내용
1층 (5.0)	International publishers	- 벨기에, 이란, 이탈리아, 네덜란드, 동유럽, 북유럽, 터키
	Guest of honour Georgia	- 주빈국 조지아 특별관
2층 (5.1)	International publishers	- 아프리카, 아랍권, 캐나다(퀘벡), 프랑스, 그리스, 라틴아메리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International networking events	- 출판업계 네트워킹 행사
	Invitation Programme of Frankfurter Buchmesse	-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계 소규모 출판사들의 초대전
	Frankfurt Kids	- 어린이/청소년 서적 전시

□ Hall 6

층	Sector	내용
1층 (6.0)	International publishers	- 호주,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미국

<별첨 2> 도서전 현장





